

“올 사람도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 한숨

내달부터 시행…지역 中企 일감 몰리는 시기 초과근무 부담
한국경제연구원 112곳 설문…55.4% “경영실적에 악영향”

근로시간단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적용받는 근로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2~3년 내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광주지역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지역 내 상당수 제조업 회사의 경우 일시적으로 주문물량이 몰리는 것이 초과근무의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정업체의 경우 원정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기일 내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반면, 일감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

는 초과근로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인력을 충원해놓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초과근로 수당을 챙겨주기도 박한 상황에서 부족한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여기에 일부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인력이 없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당장 2~3년 내에 부족한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뜩이나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사회분위

기 속에서 그것도 제조업에 종사할 입사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또 다시 외국인근로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해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 그 만큼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제품의 단가를 올리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분위기다. 단가를 올리는 문제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역 제조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기업들도 제도 시행으로 생산현장이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부서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2곳을 상대로 제도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55.4% (62곳)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복수응답)는 72.3% (81곳)가 생산현장인 공장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연구개발 부서 (22.3%), 영업 부서 (19.6%), 인사 부서 (13.4%)의 순이었다.

생산현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 (50.6%), ‘근로시간 유연화’ (32.5%), ‘스마트공장 추진’ (31.3%), ‘인력 전환 배치’ (22.9%) 등이 대책으로 꼽혔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은 하지만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해양도시가스, 풍영정천 수질정화 활동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풍영정천에서 하천 수질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양도시가스 임직원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풍영정천에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EM(효능)을 하천에 던지며 수질을 정화하는 활동을 펼쳤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식종을 조합, 배양한 유용미생물 집단을 말한다.

황토흙, EM발효제, 썰뜨물을 혼합하여 만드는 “EM흙공”을 하천 바닥에 던지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 분해되면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종 미생물군의 상호 대사작용을 통해 하천의 수질 정화와 악취제거에 도움을 준다.

해양도시가스 김형순 사장은 “물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앞으로도 깨끗한 하천을 지키기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휴일 잇은 농촌 일손돕기 광양·순천·장흥 봉사활동

전남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현충일 휴일을 반납하고 농촌지역 일손돕기에 나섰다.

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이날 전남농협과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유해근), 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강형구), 광양시지부(지부장 김희전), 순천시지부(지부장 김판욱) 등 임직원 200여명은 휴일을 반납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장을 찾아가 ‘영농철 집중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광양과 순천지역 매실농가와 장흥의 옥묘장, 양파농가 등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에 따라 최근 선거철 선거운동으로 빠지는 인력이 많아 일손부족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지역 농협중앙회 등 농협 임직원들이 6일 현충일 휴일을 반납하고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냉면·김치찌개…외식값도 줄인상

인기 외식메뉴 8개 중 7개 ↑…광주 짜장면·삼계탕 가장 비싸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치찌개 등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상승세가 멈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새 냉면 가격은 10% 올라 한 그릇에 9000원에 근접하는 등 주요 음식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

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음식값을 보면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76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1% (807원) 올라 가격 인상률이 가장 컸다.

삼겹살 가격은 200g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 (868원)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김치찌개 백반 (2.6%), 칼국수·김밥 (1.8%), 비빔밥 (1.4%), 삼계탕 (0.8%) 순으로 많이 올랐

다. 8개 조사 품목 가운데 자장면만 유일하게 4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식당 음식값을 비교해 보면 삼겹살 (200g 기준)이 가장 비싼 서울 (1만6489원)과 가장 싼 강원도 (1만1444원)의 가격 차가 5045원이나 됐다. 냉면도 가장 비싼 서울 (8769원)과 가장 싼 제주도 (7000원)의 가격 차가 1769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가장 비싼 지역은 비빔밥은 대전 (8900원), 김치찌개 백반은 제주 (7125원), 짜장면 (5300원)·삼계탕 (1만4400원)은 광주, 칼국수는 제주 (7250원), 김밥은 대전 (2300원)이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자동탑승수속서비스

제주항공은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 모바일 탑승권을 자동 발급하는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탑승수속’을 이용하게 되면 모바일 탑승권을 받은 뒤 좌석변경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도 노선을 확대, 탑승 수속 과정에 보안 인터뷰가 필요한 미국령 괌과 사이판을 제외한 29개 도시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백운광장역 상가분양

양주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4일 입찰 예정

상가 전용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 01 광주지하철 2호선 백운역(예정)초역세권
- 02 백운교가도로 철거 및 지하도 건설(예정)
- 03 200M 스트리트 수익형 상가
- 04 사통팔달 교통특권
- 05 초대형 남구 도심공원 조성(예정)

상가분양: 100여대 이상 확보! / 상가임대: 100여대 이상 확보!